

새 시즌 새 얼굴에 기대 거는 KIA

구단 사상 최초 외국인 감독 윌리엄스부터 신인 정해영까지

전문성 강화한 코칭스태프 · 새관짜기 외국인 원투펀치 등 혁신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과 선수들 모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새 시즌 새 얼굴들 활약에 기대를 키우고 있다. 선수, 코칭스태프는 물론 감독까지 신선함으로 무장했다. KIA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서 2020시즌 대비 스프링캠프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7위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자존심을 구긴 KIA는

새 시즌, 새로운 각오로 팀을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특히 새롭게 기세는 이들에게 시선이 쏠린다. 이전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가 이뤄지다보니 팀컬러 등 전반적인 혁신이 예상된다. 우선 구단 사상 최초의 외국인

시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이 스프링캠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재 길으로 풍기는 호랑이 시령탑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캠프 전반을 누비며 선수들에게 하나, 하나 세밀하고 자상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모든 것을 제

로 베이스로 설정한 채 모든 선수들의 기량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선수단 역시 어색함은 잠시였고 시령탑의 새 컬러에 맞춰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수단 내 건강한 긴장감이 조성됐다.

코칭스태프 역시 새 얼굴이 많다. 마크 위드마이어 수석코치를 비롯 송지만·최희섭 타격코치, 진갑용 배터리코치 등이 기세했고 기존 서재응·앤서니 르루, 김민호, 김중국 코치 등도 역할이 달라지거나 더 전문화됐다. 현재 젊은 선수 육성이 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코치진은 새 감독 철학과 스타일을 따르면서 전문성 강화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도 새롭게 꾸려졌다. 우완투수 애런 브룩스와 드류 가농 모두 구위와 태도면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두 투수 모두 빠른 공은 물론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선발 투수로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기대할 요소다.

그 외 지난날 말 트레이드로 영입한 3투수 장영석은 물론 김호령 등 군 제대 자원, 정해영, 박민, 홍종표 등 2020년 신인 선수도 기대를 모은다. 투수 정해영은 2020년 1차 지명 신인으로 광주일고 시절부터 에이스로 활약했다. 박민과 홍종표도 내야수로서 주목할 기대주로 평가된다.

뉴스1



휴식기 맞아 조용히 방한한 손흥민

‘드림 KFA’에 깜짝 등장…추억 선사

대한축구협회(KFA)가 마련한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드림(Dream) KFA’에 국가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이 깜짝 등장해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KFA는 11일 과주NFC와 서울 축구회관에서 ‘드림 KFA’를 실시했다. ‘드림 KFA’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손흥민의 등장은 사전에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다. 이날 행사 참가자로 선정된 중고생 25명은 오전 8시까지 축구회관에 모여 버스를 이용해 과주NFC로 이동했다. 과주 NFC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본관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이때 손흥민이 깜짝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흥민은 스포츠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조언을 건넸다. 참가자들은 친근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전하는 손흥민의 모습에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진행 중인 손흥민은 최근 열흘 가량의 휴식기를 갖고 있다. 지난 6일 사우샘프턴과의 FA컵 32강 재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오는 16일 애스턴빌라와의 EPL 원정경기까지 공식경기 일정이 없다. 이 기간에 개인 사정으로 입국한 손흥민은 ‘드림 KFA’ 행사의 취지를 전제 듣고 흔쾌히 참가를 결정했다.

손흥민의 ‘드림 KFA’ 행사 참여는 병역특례자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KFA는 지난해부터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하고자 개인 및 단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수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드림 KFA’ 역시 이에 해당해 병역특례자가 이수해야 할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흥민은 병역 특례 절차를 밟아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뉴스1

기성용 측 공식발표 “K리그 복귀 없다…해외 구단과 협상 중”

FC서울·전북현대 양 구단에 협상 종료 고지

기성용의 K리그 복귀가 결국 무산됐다. 기성용의 소속사는 “현재 국외의 리그 다수의 구단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매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K리그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사인 ‘C2글로벌’은 11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성용의 향후 거취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는 FC서울과 전북현대 양 구단에 2020년 2월10일부로 협상 종료를 고지했다”면서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선의로 타진했던 K리그 복귀가 양 구단을 비롯한 K리그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기성용 측은 선수 본인이 직접 참석해 자신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다중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자료로 대신한다고 덧붙였다.

C2글로벌 측은 “기성용 선수가 올 시즌 K리그로 복귀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선수의 의사에 따라 국외의 리그 다수의 구단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선수의 이적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구단의 채널을 통해 신속히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회사 측은 “기성용 선수는 K리그 복귀 무산에 대해 상당히 상심하고 있다. 복귀를 기대

하고 있던 국내 축구팬 여러분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이채운(가운데)이 2020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다.

‘스노보드 신동’ 이채운, FIS

아시아컵 하프파이프 초대 대회 우승

2020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아시안컵 초대 대회에서 이채운이 우승했다.

지난 10일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노보드 신동’ 이채운(14·봉담중학교)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1차 시기에서 83.25점으로 기선을 제압한 국가대표 만형 이광기(27·전북스키협회), 2차 시기에서는 이준식(18·청명고)이 86점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하이라이트는 3차 시기였다. 이채운이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십분 발휘하며 90점을 획득, 국가대

표 선수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광기, 이준식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채운을 넘어서지 못했다. 둘은 긴장한 탓인지 중간에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이채운의 우승이었다.

이로써 이채운은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준식이 2위, 이광기가 3위로 시상대에 섰다.

대회를 마친 이채운은 “국가대표 형들과 경쟁하며 좋은 경기를 펼쳐서 무척 기쁘다”며 “같이 경기를 펼칠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1

‘7년 만의 우승’ 박희영, LPGA 191위→104위로

7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박희영(33·이수그롭)이 세계랭킹을 87계단 끌어 올렸다.

박희영은 11일(한국시간) 발표된 월레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포인트 1.05를 얻어 지난주 191위에서 104위로 도약했다.

박희영은 9일 호주에서 끝난 LPGA투어 ISPS 한다 빅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유소연(메디힐), 최혜진(롯데)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13년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LPGA 클래식 이후 7년 만에 거둔 3승이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고진영(하이진트로)이 랭킹 포인트 8.52점으로 29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구자욱 2억8천만원에 도장…삼성, 연봉 협상 완료

인센티브 2천만원 포함하면 최대 3억원

삼성 라이온즈가 2020년 재계약 대상자 4명과의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 마지막 미계약 선수로 남아있던 외야수 구자욱이 10일 계약서에 사인했다.

구자욱은 지난해 연봉 3억원에서 2000만원 삭감된 2억8000만원을 올해 연봉으로 받게 되며 성적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구자욱은 오는 13일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데뷔 첫 해부터 선발투수로서 가능성을 증명한 원태인이 투수 중 최고 인상률(196%)을 기록했다. 기존 연봉 27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으로 5300만원 인상된 금액에 사인했다.

원태인은 지난해 26경기에 등판, 112이닝을 던지며 4승8패 2홀드 평균자책점 4.82의 성적을 남겼다.

역시 선발투수로서 활약했던 백정현은 기존 2억1000만원에서 33%(7000만원) 오른 2억8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지난해 8월 컴백한 투수 오승환은 올해 연봉 12억원에 사인을 마쳤다. 단, 정규시즌 개막 후 출전 정지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오승환은 올해 성적에 따라 최대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베테랑 투수 윤성환은 지난해와 같은 조건(연봉 4억원, 인센티브



최대 6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야수 중에선 한국프로야구에서 첫 시즌을 보낸 유격수 이학주가 기존 2700만원에서 233%(6300만원) 오른 9000만원에 계약하며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학주는 지난해 118경기에서 타율 0.262 7홈런 36타점 15도루로 활약했다.